

羅唐戰爭期 文豆婁 秘法과 海戰

The Mundra Secret Magic and naval battle During Na-Dang War

저자 (Authors)	이상훈 Yi Sang-hun
출처 (Source)	신라문화 37 , 2011.2, 23-49 (27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37 , 2011.2, 23-49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28229
APA Style	이상훈 (2011). 羅唐戰爭期 文豆婁 秘法과 海戰. 신라문화, 37, 23-4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31 11: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羅唐戰爭期 文豆婁 秘法과 海戰

이 상 훈*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V. 신라의 정보수집과 문두루 비법의 시행 |
| II. 문두루 비법에 관한 기록의 재검토 | V. 맺 음 말 |
| III. 서해의 해양환경과 폭풍의 발생 가능성 | |

[국문초록] 국가 총력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당전쟁은 신라의 요동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초강대국인 당의 세력에 맞선 신라군과 신라민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나당전쟁 개전초기(670~671)에 등장한 것이 바로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이다.

문두루 비법의 시행과 당 수군의 침몰에 관한 내용은 『삼국유사』에만 기록되어 있고 설화적 요소가 강해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삼국유사』의 기록은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확대·과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당의 수군은 경기만 북부일대에 정박·활동하고 있었는데, 경기만 일대는 서해에서 조류가 가장 빠르고, 조차가 세계적으로 큰 곳이다. 그리고 여러 물길이 모여들어 수로가 복잡하고, 중국에 비해 섬이 많아 항해가 곤란한 지역이다. 특히 670년과 671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던 시기여서 좌초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 신라는 당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당 수군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두루 비법을 시행하였는데, 당의 수군은 실제로 침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라는 나당전쟁 초기에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문두루 비법의 시행과 당 수군의 침몰은 신라 수뇌부에 있어서는 적과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는 한편,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명랑법사에 있어서는 사천왕사 건립을 추진하고 신인종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즉 문두루 비법의 성공은 신라 수뇌부와 명랑법사의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 경북대 대학원 박사과정

[영문초록] It is important to maintain people's morale in a national total war(國家總力戰). Silla Kingdom that opposed huge power had to be uneasy though Silla Kingdom's doing the preemptive attack(先制攻撃). Having appeared at this time is the Mundra Secret Magic(文豆婁 秘法) of Myeongrang(明朗) at once.

The enforcement of the Mundra Secret Magic and sinking of Dang's navy are recorded only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三國遺事). And, credibility has been doubted. However, it expanded, it exaggerated, and it was recorded the actual generation of the point where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West Sea(西海) at that time and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the storm were high when running.

At that time, the place on which Dang's navy had chiefly acted was a northern part of the Kyeonggi Bay(京畿灣). Kyeonggi Bay is a point where the current(潮流) is the fastest in the West Sea, and the difference of the tidewater(潮差) is a large point. And, islands are more than China and the waterway is complex points. As for Silla Kingdom, information on Dang Dynasty was collected continuing, and it knew the weak point of Dang's navy well though 670 years and 671 years were time where the wind had blown strongly.

The enforcement of the Mundra Secret Magic and sinking of Dang's navy became a good chance that the enemy was hit without fighting and it became an opportunity taken off, and the public sentiment was able to be brought together in one in Silla Kingdom. In Myeongrang, the opportunity when own sect(宗派) was able to be expanded was prepared, and a definite role was don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achenwangsa(四天王寺). The success in the Mundra Secret Magic was a combination work of the governing body of Silla Kingdom and Myeongrang.

[주제어] 나당전쟁(羅唐戰爭, The Na-Dang War), 해전(海戰, Naval battle), 수군전략(水軍戰略, Naval strategy), 문두루 비법(文豆婁 秘法, The Mundra Secret Magic), 삼국유사(三國遺事,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I. 머리말

羅唐戰爭은 668년 고구려멸망 이후 669년부터 676년까지 지속된 신라와 당의 대규모 충돌이다.¹⁾ 이러한 나당전쟁에 관한 기록은 중국측 사서보다 『삼국사기』가 보다 자세하며 신빙성이 높다.²⁾ 한편 『삼국유사』에도 나당전쟁 초기인 670년

1) 나당전쟁의 개전시점은 670년이나 671년이 아니라, 669년으로 보아야 한다. 李相勳, 「羅唐戰爭의 開戰과 薛烏儒 部隊」 『歷史教育論集』 45, 2010 참조.

과 671년에 당이 대규모 수군을 동원해 신라를 공격하였지만, 明朗法師³⁾의 文豆婁 秘法⁴⁾에 의해 모두 침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⁵⁾

『삼국유사』 권2, 文虎王法敏(문무왕)의 기록에 의하면, 669년 신라가 백제고지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자, 당 고종이 신라의 사죄사를 불러들인 후 이들을 옥에 가두고 薛邦을 하여금 50만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치고자 하였다. 이에 의상법사가 이 소식을 전해듣고 670년 귀국하여 신라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신라 조정은 명랑법사를 불러들여 문두루 비법을 시행케 하였다. 이에 당의 수군은 모두 침몰되었으며, 671년 趙憲이 이끄는 당의 수군 또한 문두루 비법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한다.

문두루 비법이라는 주술적 의식은 당에 대한 신라인들의 공포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공포심을 없애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비법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선택된 것이 바로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이었던 것이다.⁶⁾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문두루 비법의 시행과 호국사찰인 사천왕사의 건립은 신라인의 정신적인 힘을 함양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⁷⁾

명랑법사가 문두루 비법을 통해 사천왕사를 건립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삼국유사』에 나타난 두 차례의 당 수군의 신라 공격과 침몰은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설화적 요소로 인해 나당전쟁 당시

- 2) 존 C. 재미슨, 「羅唐 同盟의 瓦解 - 韓中 記事 聚合의 比較」, 『歷史學報』 44, 1969.
- 3) 명랑법사와 신인중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8의 연구성과를 참조하기 바라며, 본고는 나당전쟁기의 해전 자체에 대한 고찰보다 문두루 비법의 성공배경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것에 한정되었음을 밝혀둔다.
- 4) 文豆婁는 『灌頂經』 권7, 「伏魔封印大神呪經」의 文頭婁法에서 유래하는데(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教 傳來考」, 『曉城趙明基博士 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1965, p. 73), 산스크리트어의 'Mundra'를 音寫한 것이며(文明大, 「新羅 神印宗의 研究 - 新羅密教와 統一新羅社會」, 『震檀學報』 41, 1976, p. 205), 意譯하면 '神印'이다. 문두루 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II장의 사료A 참조. 그리고 문두루 비법의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김태식, 「경주 사천왕사와 명랑법사의 문두루법」, 『연합뉴스』(2006년 11월 2일자 생활/문화)도 참고가 된다.
- 5) 『삼국유사』 권5, 惠通降龍, “이보다 먼저 밀본법사의 뒤에 고승 明朗이 있었다. 용궁에 들어가 神印(梵語로는 文豆婁라고 하는데, 神印을 말한다)을 얻어, 신유림(지금의 천왕사)을 처음 세우고, 여러 번 이웃 나라가 쳐들어 오는 것을 기도로써 물리쳤다”.
- 6) 文明大, 앞의 논문, p. 203.
- 7) 金相鉉,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新羅와 狼山』(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p. 141.

의 배경을 이해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뿐, 670년과 671년의 당 수군의 신라 공격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라 밀교에 대한 연구⁸⁾는 상당히 진행되었지만,⁹⁾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文明大·金相鉉의 연구를 비롯하여,¹⁰⁾ 최근에는 조원영·金淵敏 등의 연구에 의해 명랑의 문두루 비법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¹⁾ 그러나 문두루 비법에 나타난 당 수군의 침몰에 관한 내용을 역사적 사실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다.

문두루 비법의 시행과 사천왕사의 건립이 당시 신라인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670년과 671년에 당의 수군이 문두루 비법에 의해 침몰하였다는 것을 단순히 설화로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신라 수뇌부가 아무런 배경없이 단순히 주술에만 의지하여,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하였을 지도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설화적인 기사임을 염두해 두면서, 그 속에 역사적 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삼국유사』 기록의 의문점을 확인하고, 당 수군의 실제 파견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당시 서해의 항해환경과 폭풍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신라의 정보수집 능력을 확인하여 문두루 비법의 성공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두루 비법이 단순히 신라의 염원을 담은 주술로써 사용된 것이 아니라,

8) 신라 밀교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教 傳來考」, 『曉城趙明基博士 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1965; 徐閔吉, 「新羅의 密教思想」, 『韓國哲學研究』 9, 1977; 金在庚, 「新羅의 密教受容과 그 性格」, 『大丘史學』 14, 1978; 洪潤植, 「三國遺事와 密教」, 『東國史學』 14, 1980; 鄭泰燦, 「韓國佛教의 密教的 性格에 대한 考察」, 『佛教學報』 188, 1981; 金煥泰, 「三國時代의 神呪信仰」, 『韓國密教思想研究』, 東國大學校佛教文化研究院, 1986; 高翊晉, 「初期密教의 發展과 純密의 受容」, 『韓國古代佛教思想史』,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키무라 부오, 「한반도 ‘한국’의 밀교」, 『밀교의 역사와 문화』, 民族社, 1989; 宗釋(全東赫), 「密教經典의 新羅 傳來考」,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8, 1999; 金昌鎬, 「新羅 密教사원 四天王寺의 역사적 위치」, 『佛教學報』 3, 2001; 김상태·박언근, 「四天王寺의 密教的 特性에 關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20-4(186), 2004.

9) 신라 불교의 전반적인 연구에 관해서는 金福順, 「신라 불교의 연구현황과 과제」, 『新羅文化』 26, 2005가 좋은 참고가 된다.

10) 文明大, 앞의 논문; 金相鉉, 앞의 논문.

11) 조원영, 「新羅 中代 神印宗의 成立과 그 美術」, 『釜山史學』 40·41, 2001; 金淵敏, 「新羅 文武王代 明朗의 密教思想과 의미」, 『韓國學論叢』 30, 2008.

신라 수뇌부가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의도적으로 시행시킨 점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는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II. 문두루 비법에 관한 기록의 재검토

다음은 문두루 비법에 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A-①이때에 당나라 유격병의 모든 장병들이 진에 머물고 있으면서 장차 우리를 습격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왕이 알아채고 군사를 동원하였다. ②이듬해에 고종이 사람을 시켜 인문을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하고도 우리 군사를 해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고는 곧 육에 가두고 50만 군사를 조련하여 薛邦을 대장으로 삼아 신라를 치려 하였다. 이때에 의상법사가 서쪽으로 당나라에 들어와 유학하고 있던 중에 인문을 찾아와 보니 인문이 이 일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 ③의상이 곧 신라로 돌아와 왕에게 보고하였더니, 왕이 매우 염려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방어할 계책을 물었다. 각간 김천존이 아뢰기를 “요즘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오니 바라건대 불러 물어보소서”라고 하였다. 명랑이 왕에게 아뢰되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는바 그곳에 사천왕사를 짓고 도량을 개설하면 될 것이외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貞州에서 사람이 달려와 급보하기를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나라 국경까지 와서 바다 위에서 순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명랑을 불러 말하기를 “일이 이미 절박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니 명랑이 말하기를 “채색비단으로써 임시로 집을 만들 것이외다”라고 하여 왕이 채색비단으로써 절집을 만들고 풀로써 5방신상을 꾸려 놓고 유가명승 12명이 명랑을 우두머리로 삼아 文豆婁 비법을 부렸다. 이때에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아직 교전을 하지 않았는데, 풍랑이 크게 일어나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뒤에 절을 고쳐 지어 사천왕사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불단의 법석이 계속되고 있다(『國史』에는 조로 원년(679) 기묘에 크게 고쳐 지었다고 하였다). ④그 후 신미년(671)에 당나라는 당시 趙憲을 장수로 삼아 보내어 역시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왔다. 이때에도 다시 이 술법을 썼더니 배들은 그 전처럼 침몰하였다.¹²⁾

12) 『삼국유사』 권2, 文虎王法敏.

먼저 사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에 나타난 시기를 확인해두고자 한다. 당군이 진에 머물면서 신라를 도모하려 한 A-①의 ‘이때’는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668년이다.¹³⁾ 당 고종이 김인문을 불러 꾸짖은 A-②의 ‘이듬해’는 고구려 멸망 다음해 이므로 669년이다(B-①). 그런데 669년 사죄사로 파견된 인물에 관해, 『삼국유사』 권2, 文虎王法敏에는 김인문이라고 되어 있으나, 『삼국유사』 권2, 義湘傳教에는 김흠순(혹은 김인문)이라고 되어 있다.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 볼 때(B-②), 669년 사죄사로 파견된 인물은 김인문보다는 김흠순이 옳을 듯 하다.¹⁴⁾ 그리고 의상이 귀국하여 신라왕에게 보고한 A-③의 시기는 670년이다.¹⁵⁾ 마지막으로 당의 수군이 재차 파견된 A-④의 신미년은 671년이다.

B-① 여름 5월 … 또 각각 흠순과 파진찬 양도를 당나라에 보내 사죄하였다.¹⁶⁾

B-② 봄 정월에 고종이 흠순에게는 귀국을 허락하고 양도는 억류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는 감옥에서 죽었다. [이는] 왕이 마음대로 백제의 토지와 백성을 빼앗아 차지하였으므로, 황제가 책망하고 노하여 거듭 사신을 억류하였던 것이다.¹⁷⁾

『삼국사기』 B-①에는 신라가 669년 흠순과 양도를 당나라에 사죄사로 보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B-②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각 김흠순은 김유신의 동생이자 문무왕의 외숙이며, 파진찬 김양도는 당에 6번 使行한 바

13) 『삼국유사』 권5, 明朗神印, “총장 원년(668) 무진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대병을 거느리고 신라와 합작하여 고구려를 멸하였다. 그 뒤에 남은 군사가 백제에 머물면서 장차 신라를 습격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신라사람이 알아차리고 군사를 내어 이에 대항하였다. 고종이 이 소문을 듣고 분노하여 설방을 시켜 군사를 동원하여 치려 하였다. 문무왕이 이 말을 듣고 걱정하여 법사에게 청하여 비법으로 액막이를 하여 물리쳤다(기사는 『문무왕전』 가운데 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신인종의 시조가 되었다”.

14) 또한 의상이 김인문을 만나서 당의 신라 침공 소식을 알았다기 보다는, 흠순 등이 몰래 의상에게 사람을 보내어 귀국을 권했다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金相鉉, 앞의 논문, p. 128.

15) 『삼국유사』 권2, 義湘傳教, “얼마 뒤에 본국의 재상 김흠순(인문이라고도 한다)과 양도 등이 당나라에 가서 구금되었고, 고종이 대거 東征을 하려던 차에 흠순 등이 몰래 의상을 보내어 앞질러 가도록 도모하였다. 함형 원년(670) 庚午에 귀국하여 조정에 보고하니, 신인종의 대덕 명랑을 시켜 임시로 밀교의 단을 만들어 범으로 제사 지내니 나라가 화를 면하였다”.

16) 『삼국사기』 권6, 문무왕 9년(669).

17)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670).

있는 고위 귀족이다. 이들을 669년 5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사죄사’로 당에 파견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백제지역에 대한 신라의 공략과 관계된 사건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¹⁸⁾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을 참조하면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이 보다 선명해 진다. 즉 당의 백제 주둔군이 장차 신라를 도모하려 하자, 신라가 이를 알아채고 먼저 공격하였기 때문에(A-①) 당은 신라에 사죄사를 요구하였던 것이다(A-②). 이렇듯 『삼국유사』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소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건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 정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당이 사죄사를 불러 감금시킨 점은 『삼국사기』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사료로서 신뢰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669년 당이 薛邦을 장수로 삼아 병력 50만을 동원하여 신라를 치려했다는 점, 둘째 670년 신라가 명랑의 문두루 비법을 이용하여 당 수군을 침몰시켰다는 점, 셋째 671년 당이 趙憲을 장수로 삼아 병력 5만으로 신라를 재차 공격해왔지만 문두루 비법으로 인해 다시 침몰된 점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삼국유사』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당의 장수로 나오는 설방·조현의 존재와 이들이 동원한 50만·5만의 병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¹⁹⁾ 또한 당의 수군을 문두루 비법 즉 주술로써 침몰시켰다는 점 때문에, 문두루 비법과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은 설화처럼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사료로서 신빙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들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670년과 671년 두 차례 당이 수군을 동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자.

C-①봄 정월 … 말갈 군사가 쳐들어와 설구성을 포위하였다가 이기지 못하고 장차 물러가려 하자, 군사를 내어 쳐서 300여 명을 목베어 죽였다. ②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구원하려 온다는 말을 듣고 대아찬 진공·아찬△△△ 등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응포를 지키게 하였다. … ③겨울 10월 6일에 당나라 조운선 70여 척을 공격하여 낭장 겸이대후와 병사 100여 명을 사로잡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²⁰⁾

18)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p. 239.

19) 『삼국유사』에 나타난 설방의 침공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수용하는 견해도 있다. 강경구, 『羅唐 戰爭의 序幕 -671년 海戰을 중심으로-』, 『신라의 북방 영토와 김유신』, 학연문화사, 2007, p. 287.

20)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670).

『삼국유사』의 문두루 비법에 관한 내용은 해상전투를 상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671년 정월에 당군이 백제를 구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포를 지키게 했다(C-②)는 것과 같은 해 10월에 당의 조운선 70여 척을 공격하였다(C-③)는 기사와 대응시킬 수 있다.²¹⁾ 그러나 670년의 경우 『삼국사기』에는 당 수군의 활동기록이 전혀 없다.²²⁾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671년 정월에 백제의 설구성을 공격한 말갈부대의 존재이다(C-①). 이 말갈부대는 당의 백제잔류군이거나 새로 투입된 병력으로 볼 수 있다. 660년 백제와 668년 고구려 멸망 후 주둔한 당군 규모가 2만 명 내외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670년 신라의 공격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9천 명에 이르고, 수많은 전마·병장기들을 탈취당하였으며,²³⁾ 이듬해 당의 백제 구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떠한 군사활동이 전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당의 백제 주둔군은 궤멸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²⁴⁾ 그러므로 671년 1월에 설구성을 공격한 말갈부대는 당 주둔군이 아니라 백제고지로 새롭게 투입된 병력으로 보아야 한다.²⁵⁾ 그리고 670년 4월에 편성된 고간·이근행의 부대는 육로를 통해 요동을 거쳐 한반도 북부로 진군하였기 때문에, 이 말갈부대는 고간·이근행의 부대와는 다른 부대임을 알 수 있다. 670년 3월에서 4월까지 오골성 전투를 수행하던 말갈부대가 백제고지로 다시 투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⁶⁾

이들 말갈부대는 한강유역을 신라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수군과 협조하여²⁷⁾ 배를 타고 금강하구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당시 당의 주력전선인 樓船²⁸⁾의

21)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 98, 주63.

22) 한편 672년에는 고간·이근행의 육로 행군 외에, 산동반도에 병력을 집결시켜 수륙양으로 출병시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拜根興, 「百濟와 唐 관계에 관한한 두 문제 -웅진 도독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묘지명에 관하여-」, 『百濟研究』 47, 2008, p. 71.

23)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670) 7월조 참조.

24) 660년 백제 멸망 후 주둔하던 병력은 당군 1만명이었으며, 671년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답설인귀서」에서도 백제에 주둔하던 당군을 ‘漢兵 1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671), 「답설인귀서」).

25) 이에 관해서는 李相勳, 「羅唐戰爭期 伎伐浦 戰鬪와 薛仁貴」, 『大丘史學』 90, 2008, pp. 49~55 참조.

26) 670년 3월 개동양에서 설오유부대를 기다리고 있던 말갈부대는 670년 4월에 편성되기 시작한 이근행의 행군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우며, 이들은 안동도호부 영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당군으로 판단된다. 李相勳, 「羅唐戰爭의 開戰과 薛烏儒 部隊」, pp. 262~264 참조.

27) 이와 유사한 예로, 673년 당군은 우잠성(황해 금천)을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거란·말

속도는 2~3노트(시속 5km 내외)²⁹⁾ 100시간이면 500km, 200시간이면 1000km를 주파할 수 있다. 그러나 연안에서 야간에는 좌초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루종일 항해할 수 없고, 바람과 조류·해류의 영향으로 주간에도 그리 수월하게 항해를 할 수 없으며,³⁰⁾ 항해도중 보급·정비를 할 경우 시간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기만에서 금강하구까지는 신라의 수역이었으므로 한층 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하루 10시간 내외를 항해한다고 한다면, 1일 50km이므로 20일이면 1000km를 항해할 수 있다. 압록강 하구에서 금강 하구까지 직선거리로 약 550km, 금강 하구에서 부여까지 약 50km이므로, 총 600km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도상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해안선과 강의 굴곡을 고려하면, 이 거리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약 600km를 시속 5km로 항해한다고 하면 12일이 소요되고, 1,200km를 시속 5km로 항해한다고 하면 24일이 소요된다. 게다가 이들 말갈부대가 압록강 하구에서 승선하여 출발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으며, 보다

갈군이 대양성(강원 금강)·동자성(경기 김포)을 공격하여 멸한 적이 있다(『삼국사기』 권7, 문무왕 13년 9월). 당군 외에 蕃兵이 한강 하류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 한강 하류는 직접 도하할 수 없으므로 이는 수군과 협조된 공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675년에는 말갈부대가 유인계의 명을 받아 배를 타고 신라의 남쪽경계를 공략하기도 하였다(『資治通鑑』 卷202, 唐紀18, 高宗上元2年, “二月, 劉仁軌大破新羅之衆於七重城, 又使靺鞨浮海略新羅之南境, 斬獲甚衆”).

- 28)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671년 당시 신라에 투입된 당의 주력전선은 누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671), 「설인귀서」, “仁貴樓船, 竟翼風帆, 連旗, 巡於北岸, 矜其舊日傷弓之羽, 未忍加兵, 恃爲外援, 斯何謬也”; 同書, 「답설인귀서」, “即遣數萬之衆, 傾覆巢穴, 樓船滿於滄海, 鱗舳連於江口, 救彼熊津, 伐此新羅”.
- 29) 누선은 기본적으로 3층 이상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 위에 돛을 설치하기 어려우며, 실제 돛이 그려진 그림이나 돛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다(劉旭 編, 『中國古代兵器圖冊』, 北京圖書館出版社, 1986; 王冠偉 編, 『中國古船圖譜』, 三聯書店, 2000; 劉秋霖 외 3인, 『中國古代兵器圖說』, 天津古籍出版社, 2003 등 참조). 그러므로 누선은 기본적으로 노를 젓는 인력에 의존해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누선의 실제속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럽의 갤리선을 참조해 볼 수 있다. 갤리(galley)선은 노를 주로 사용하고 돛을 보조적으로 쓰는 배를 말하는데, 보통 2단 갤리선의 경우 평균속도가 3~4노트이며, 전투시에는 6~7노트까지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중국 누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갤리선보다 육중하고, 또 유럽처럼 노가 2~3단으로 설치된 예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평균속도는 2~3노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30)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會昌 6년 9월 5일의 기사를 보면, “바람이 동남으로 변하게 되니 떠날 수가 없었다. 밤 12시 무렵 서북풍이 불어 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안전한 요동반도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³¹⁾ 따라서 출항준비시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한달 이상은 소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670년 1월에 설구성을 공격한 말갈부대가 당 수군의 협조하여 백제고지로 출항한 시기는 670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요동의 오골성 전투가 4월에 종료되므로, 670년 하반기에 이들 말갈부대는 당 수군과 협조하여 함께 백제고지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당은 670년과 671년 모두 수군을 동원한 것이 되며, 『삼국유사』의 기록 또한 틀린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당대 軍府(折衝府) 총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는 전국에 약 630府가 존재하였으며, 1부 평균 800명으로 총 병력수는 약 50만이었다.³²⁾ 이 수치는 669년 당 고종이 “50만 군사를 조련하여 薛邦을 대장으로 삼아 신라를 치려 하였다”라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러나 당은 이듬해 670년 4월 토변이 안서4진을 점령하자, 薛仁貴를 나사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서쪽으로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하게 된다.³³⁾ 따라서 『삼국유사』의 기록은 당 고종이 정규군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신라를 치고자 했던 의도를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 총장 원년(668) … 또 소식을 들으니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는 것은 길로는 왜국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라를 치고자 하는 것이다’하여,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불안해 하였습니다. … 함형 원년(670)
… 34)

「답설인귀서」³⁵⁾의 D를 보면 당은 수군을 준비하며 신라를 공격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이는데, 668년에서 670년 사이의 일이다. 즉 669년 당 고종이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자 결심하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당 수군은 670년 4월 토변전

31) 당의 주요 수군 기지는 산둥반도의 등주였으므로, 수군은 해로로 이동하고 말갈부대는 육로로 이동하여 요동반도의 중간 합류지점에서 조우하여 승선하였을 것이다.

32) 唐 折衝府에 관해서는 張沛 編, 『唐折衝府匯考』, 三秦出版社, 2003 참조.

33) 『舊唐書』 卷5, 高宗本紀5, 總章 3年(670), “夏四月, 吐蕃寇陷白州等十八州, 又與于闐合衆襲龜茲撥換城, 陷之, 罷安西四鎮 … 以右威衛大將軍薛仁貴爲邏娑道行軍大總管, 右衛員外大將軍阿史那道眞, 左衛將軍郭待封爲副, 領兵五萬以擊吐蕃”.

34)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671), 「답설인귀서」.

35) 671년 당의 총관 설인귀가 신라로 보낸 서신은 「설인귀서」, 신라가 설인귀에게 보낸 답신은 「답설인귀서」라고 한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당과의 전쟁이 너무도 중대한 일이었기에 두 서신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던 것으로 보이며, 나당전쟁의 실상을 전하는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2002, p. 236.

선으로 투입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라전선으로는 투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당은 670년 하반기에 오골성 전투를 치른 말갈부대와 수군을 백제고지로 투입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E. 당나라는 한 사람의 사신을 보내 일의 근본과 사유를 물어보지도 않고서고, 곧바로 數萬의 무리를 보내 저희 나라를 뒤엎으려 하여, 樓船들이 푸른 바다에 가득하고 배들이 잇대어 강어귀에 줄지어 있으면서, 저 웅진을 생각하여 저희 신라를 공격하시는 것입니까?³⁶⁾

「답설인귀서」의 E와 671년 “당나라는 당시 趙憲을 장수로 삼아 역시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671년에 투입된 조현이라는 당의 장수와 5만이라는 당의 수군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편 존 C. 재미슨은 『삼국사기』가 중국의 자료를 추출하여 편입시켜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관계를 연구하는데 실망스러운 점이 적지 않지만, 나당전쟁에 관해서는 오히려 중국측 사료가 불완전하다고 하였다.³⁷⁾ 특히 나당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매소성 전투를 기록하는 면에서는 중국측 사서인 『資治通鑑』·『兩唐書』의 기록이 『三國史記』보다 자세하지 못하며 불완전하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三國遺事』의 기록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全唐文補遺』 第5輯에 수록된 ‘郭志該’라는 인물의 묘지명이 주목된다.³⁹⁾ 묘지명에 의하면, 광지해는 ‘咸亨2年(671)’에 鷄林道判官 겸 知子營總管으로 임명되어, 押運使의 역할을 수행하였고,⁴⁰⁾ 풍랑으로 인해 배가 부서져 익사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국측 기록이 아니라 중국측 기록이며, 게다가 묘지명이므로 신빙성이 아주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즉 671년 설인귀는 계림도행군총관에 임

36)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671), 「답설인귀서」.

37) 존 C. 재미슨, 앞의 논문.

38)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2007, pp. 93~99 참조.

39) 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 編, 『全唐文補遺』 第5輯, 「(上關)縣令郭君(志該)墓誌銘并書」, “君諱□□□志該, 太原人也. … 軍將等以公早習戎昭, 夙閑韜略, 遂表公爲鷄林道判官·兼知子營總管. 又奏公爲押運使. 於是揚舳巨海, 鼓棹遼川. 風起濤驚, 船壞而溺. 形沉水府, 神往修文. 其化迹之時, 卽唐咸亨二年之歲也”.

40) 唐의 行軍은 行軍대총관·부대총관 이하 判官·典 등의 막료가 있고, 總管·子總管·押官·隊正·火長의 직제로 이루어진다. 菊池英夫, 「日唐軍制比較研究上の若干の問題-特に「行軍」制を中心に-」,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979, p. 404.

명되었고, 광지해는 이러한 설인귀의 행군에 관관으로서 수송선을 거느리고 한반도로 실제 투입되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당이 수군을 670년과 671년 두 차례 파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설방의 50만은 당의 정규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현의 5만은 실제 투입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671년 경우 당의 수군이 실제로 한반도로 투입되다가 풍랑에 의해 침몰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두루 비법을 묘사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비록 설화적이지만, 일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확대·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서해의 해양 환경과 폭풍의 발생 가능성

나당전쟁기에는 이미 고구려가 멸망하고 없는 상태이므로, 당의 수군은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를 거쳐 한국의 서해안을 따라 남하했을 것이다.⁴¹⁾ 당시 당은 일반적으로 압록강구-대동강구-장산곶-대청도-교동도-강화도-덕물도-당은포를 거쳐 신라내지로 진입하였다.⁴²⁾ 그렇다면 670년 당시 당 수군이 서해의 어느 구간에 머물러 있었던지를 확인해보자.

F. 의상이 곧 신라로 돌아와 왕에게 보고하였더니, 왕이 매우 염려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방어할 계책을 물었다. 각간 김춘손이 아뢰기를 “요즘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오니 바라건대 불러 물어 보소서”라고 하였다. 명랑이 왕에게 아뢰되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는바 그곳에 사천왕사를 짓고 도량을 개설하면 될 것이외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貞州에서 사람이 달려와 급보하기를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나라 국경까지 와서 바다 위에서 순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⁴³⁾

41) 중국 산동반도에서 한반도 향하는 노선은 크게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의 연안을 따라 이동하여 한국의 서해안으로 내려오는 연안항로와 산동반도에서 황해를 가로질러 한국의 서해안으로 직접 도달하는 횡단항로가 있는데, 황해 횡단항로는 중간 기착지가 없으므로 당시 당군은 보다 안전한 연안항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42) 劉希爲, 『隋唐交通』, 新文豐出版公司, 1992, p. 135.

43) 『삼국유사』 권2, 문호왕법민.

『삼국유사』의 F에 보이는 貞州는 지금의 개성에 해당하므로,⁴⁴⁾ 이들은 대동강에서 강화도 사이에서 활동 및 정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바로 황해도 연안과 경기만 지역이다.

고대의 항해는 항해술과 조선술의 한계로 인하여 연안항해와 근해항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길과 남부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길, 중국의 산둥에서 들어오는 길, 그리고 제주도에서 북상하는 길, 일본열도에서 북으로 올라가거나, 대방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는 길, 이러한 모든 길이 상호교차하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바로 경기만으로, 이른바 해양교통의 결절점이 된다.⁴⁵⁾ 그리고 경기만은 지형적으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예성강·임진강·한강이 하계망을 구성하면서 서해중부로 흘러들어와 경기만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곳을 장악하면 중부해상권의 장악은 물론 하계망과 내륙수로를 통해서 예성강유역·임진강유역·한강유역·웅진반도·장산곶 등 내륙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⁴⁶⁾ 이렇게 볼 때 당 수군은 대동강 하구와 경기만 북부일대에서 활동 혹은 정박하면서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선박의 항해에 영향을 주는 해양환경은 바람·태풍·안개와 같은 기상 조건과 해류·조류·조석·파랑·수심과 같은 海象 조건으로 구별된다. 여러 요인들 가운데 선박의 항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람·태풍·해류·조류이다.⁴⁷⁾ 선원들이 해안의 모든 지형지물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한국 서해안의 경우 연안항해가 중국과 한국을 가로지르는 원양항해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⁴⁸⁾ 서해 연안에서 선박의 항해에 미치는 해류·조류의 영향을 보면, 원양에서는 해류가 거의 무시해도 좋은 만큼 작은 반면, 연안에서는 조류가 매우 큰 편이다.⁴⁹⁾ 조석에 의한 해면의 오르내림에 동반되어 일어나는 해수의 수평방향의 운동

44) 貞州는 고구려 때의 지명으로 원래 경기도 豊德이며, 고려 현종 9년(1018)에 開城郡의 속현이 되었다.

45) 윤명철, 「경기만지역의 해양방어체제」 『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제 연구』, 백산자료원, 2000, p. 403.

46) 윤명철,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동아시아중해의 역학관계」 『고구려 남진 경영사의 연구』, 백산자료원, 1995, p. 509.

47)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 9.

48) 정진술, 같은 책, p. 33.

49) 정진술, 같은 책, pp. 37~38; 그리고 옛 선원들은 연해안을 항해할 때는 주로 조류를 탔고, 원양을 항해할 때는 계절에 따라 바람을 이용하였다(金文經, 「張保臯研究」, 연경문화사, 1997, p. 122).

을 潮流(tidal current)라고 하는데, 하루 2회 왕복 즉 4회의 방향전환을 하는 해수의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조류는 이동 범위가 좁은 편이지만, 실제 해류에 조류가 겹쳐서 이동하므로 대단히 복잡하며, 곳이나 해협·좁은 내해 등에서는 流速이 극히 빠르다.⁵⁰⁾

<표 1> 서해 연안의 潮流 속도⁵¹⁾

장소	유속(노트)	장소	유속(노트)
발해 해협	2~3	산동성 蓬萊	2.5~3
평북 假島 연안	1.5~3.8	산동성 成山角	2.5~3
대동강 하구	2.5~4.8	산동성 莫耶島	2
장산곶	5~7	산동성 靑島	2
격렬비열도	1.4~2.6	강소성 連雲港	1.5
매물수도	2~3.8	강소성 新洋港	2~3

당군이 정박하고 있었던 곳으로 예상되는 대동강 하구와 경기만 북부일대는 중국을 포함한 황해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이다. 樓船의 속도가 2~3노트인 점을 감안하면,⁵²⁾ 특히 장산곶의 유속은 항해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강화도와 교동도 사이의 바다를 강화만이라 부르는데, 이 좁은 협수로는 물길이 동서남북의 4군데서 모여들기 때문에 물길이 복잡하고, 특히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므로 조류의 흐름이 불규칙하여 항해하기에 매우 힘든 곳이다.⁵³⁾ 또한 풍랑⁵⁴⁾이 해류·조류나 바람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면, 높고 끝이 뾰족한 삼각파(潮汐波, tidal wave)가 일어난다. 이는 해조류가 강한 곳에서 잘 형성되므로, 곳이나 만의 입구·해협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⁵⁵⁾ 아울러 한국의 서해는 조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潮差도 커서 세계 3대 潮差지역에 속한다.

50) 설동일, 『해양기상학』, 다솜출판사, 2006, p. 153.

51) 정진술, 앞의 책, p. 20.

52) II장의 주29 참조.

53) 윤명철, 「경기만지역의 해양방어체제」, p. 483.

54) 風浪은 風波라고도 하며, 海波(sea wave)의 한 종류로서 해파 중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 해양에서 일어나는 파동운동으로 해수의 상태변화가 주위에 물결모양으로 전해져 가는 현상을 말하며, 해수 자체가 이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파랑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바람이 불고 있는 해상에서 그 현장의 바람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파동을 의미한다. 설동일, 앞의 책, p. 145 참조.

55) 설동일, 같은 책, p. 147.

<표 2> 세계 각처의 潮差⁵⁶⁾

지명	대조차(m)	소조차(m)
한국 인천	8.1	3.6
일본 도쿄	1.3	0.5
중국 홍콩	1.2	0.5
영국 리버풀	8.1	4.2
미국 뉴욕	1.6	1.1
캐나다 펀디만	13.6	10.4

이렇듯 당군이 활동 혹은 정박하고 있던 곳은 조류가 황해에서 가장 빠르고, 조수 간만의 차가 세계적으로 큰 곳이며, 해수와 담수가 섞여 물길이가 아주 복잡한 곳이었다. 따라서 폭풍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한편 태풍의 발생기는 연중 내내이며, 한국에 내습하는 태풍은 빠를 때는 6월, 늦을 때는 10월 하순에도 발생한다. 통계에 의하면, 1904년에서 1983년까지 80년간 내습한 247회의 태풍 중 93%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하였다.⁵⁷⁾ 월별 진로를 보면, 7월에는 동중국해를 거쳐 중국대륙으로 상륙하거나 한국을 통과하는 것이 많고, 8월에는 한국 남부지방을 그리고 9월에는 일본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⁵⁸⁾ 그리고 한여름에 내습하는 태풍의 강수량은 비교적 적고 바람이 주가 되므로 바람태풍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장마철이나 가을태풍은 바람보다는 비가 주가 되므로 비태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⁵⁹⁾ 폭풍이 내습하면 해안에서는 해면이 異常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기압의 하강에 의해 수위가 상승하고 폭풍에 의해 해수가 해안에 압류되어 해일을 발생시킨다. 게다가 이것이 滿潮와 겹치게 되면 수위의 상승이 더욱 커져 피해가 증대된다.⁶⁰⁾ 670년 당시 당 수군이 어느 시기에 서해안에 정박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들이 태풍의 발생기에 정박하고 있었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다.

G-①여름 6월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의 관작을 빼앗았다. 한왕 양의 군사가 임유관으로 나와서 홍수를 만나 군량의 운반이 이어지지 못했고, 군사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또 전염병에 걸렸다. 주라후가 동래로부터 배를 타고 평양성으

56) 설동일, 같은 책, p. 152.

57) 정진술, 앞의 책, p. 14.

58) 중앙기상대, 『한국태풍80년보(1904~1983)』, 중앙기상대, 1984, pp. 11~20; 정진술, 앞의 책, p. 14에서 재인용.

59) 설동일, 앞의 책, p. 281.

60) 설동일, 앞의 책, pp. 287~288.

로 쳐들어 오다가, 역시 바람을 만나 배가 많이 표류하고 가라앉았다.⁶¹⁾

G-②바닷길로 使行이 고려에 가자면 바다가 망망하고 섬들이 험하여 폭풍을 만나면 배가 암초에 부딪쳐 파손되었다. 急水門을 빠져나가 群山島에 닿아야만 비로서 무사히 도달하였다고 하는데, 수십 일이 걸리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 예성강은 양쪽 산 사이에 있는 石峽으로 묶인 까닭에 강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데, 이것이 이른바 急水門으로서 제일 험악한 곳이다.⁶²⁾

G-①은 고구려 영양왕때 수나라가 고구려를 수륙으로 공격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주라후의 수군은 황해 북부해역에서 바람으로 인해 표몰되어 평양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느 지점에서 표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G-②를 통해 보면 중국에 비해 섬이 많은 한국 서해의 해양환경이 중국인에게는 익숙치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기만 북부의 예성강 일대는 중국에도 널리 알려질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한편 675년 9월에는 설인귀가 숙위학생 풍훈을 이끌고 한강하구의 泉城을 공격하는데,⁶³⁾ 당이 反신라적인 인물과 그 세력을 규합하여 신라로 침공해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풍훈의 아버지 김진주는 하슬라주(강릉) 장관과 병부령·大幢摠管을 역임한 바 있다.⁶⁴⁾ 따라서 김진주가 신라의 군사 업무에 능통했던 점에서 볼 때, 그 아들 풍훈을 길잡이로 삼은 것은 서해안의 복잡한 지형과 해류를 감안해⁶⁵⁾ 한강 하구 일대로 진입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⁶⁶⁾ 이렇듯 한국의 서해는 중국의 동해에 비해 섬이 많고 조류가 빠르며 조수간만의 차도 커서, 현지인이 아닌 당 수군으로서의 항해 혹은 정박이 쉽지 않은 곳이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61) 『삼국사기』 권20, 영양왕 9년(598).

62) 『宋史』 卷487, 外國列傳, 高麗.

63)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5년(675).

64) 『삼국사기』 권5, 선덕왕 8년(639)·태종무열왕 6년(659); 同書 권6, 문무왕 원년(661)·2년(662).

65) 서해에서 강화도를 거쳐 한강으로 진입하는 해역은 조류와 강물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양쪽에서 온 해수와 민물이 서로 맞부딪히므로 소용돌이가 생겨 물길을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해역의 독특한 물길, 조류의 흐름과 방향, 시간 등을 숙지한 현지인이 아니고서는 통과하기 어렵다(윤명철, 「경기만의 해양방어체제」, pp. 495~496).

66)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29, 2007, p. 21.

한편 670년과 671년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폭풍이 발생하였다는 기사는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설인귀서」와 「답설인귀서」를 보면 당시의 氣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H-①오호라! 전에는 충성스럽고 의롭더니 지금은 역적의 신하가 되었구나!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가서는 나빠진 것이 한스럽고, 근본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진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바람은 높고 날씨는 절실하며 잎은 떨어지고 세월은 비감한데,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⁶⁷⁾

H-②지난해(670년) 9월 이런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사신을 보내 아뢰게 하였으나 바다에서 표류하여 되돌아 왔으므로,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역시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는 바람이 차고 파도가 세어 미처 아뢰 수 없었는데, 백제가 거짓을 꾸며 “신라가 반역하였다”고 아뢰었습니다. … 사인 임윤이 영광스러운 편지를 가지고 이르러서야 총관께서 풍파를 무릅쓰고 멀리 해외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⁶⁸⁾

신라가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표류했다는 H-②의 내용은 신라의 핑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당시 신라와 당 사이의 황해 항해는 쉽지가 않았으며,⁶⁹⁾ 8세기 신라의 사신이 표류한 사실도 적지 않게 확인이 된다.⁷⁰⁾ 이들이 익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람이나 폭풍에 의해 좌초되거나 전복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H-②의 내용은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H-①과 H-②의 내용을 보면 670년과 671년 당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671년 4월의 경우,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부러뜨릴 정도였다고 한다.⁷¹⁾ 바람은 선박의 항해나 정박에 있어 가

67)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671), 「설인귀서」.

68) 同書, 「답설인귀서」.

69) 한국 고대의 해양사와 관련된 사료는 최광식 외, 『한국해양사자료집(고대·고려편)』,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가 좋은 참고가 된다.

70) 『삼국사기』 권10, 흥덕왕 6년(831), “2월에 왕자 金能儒를 승려 아홉 명과 함께 당나라에 보내 조회하였다. 가을 7월에 당나라에 들어갔던 進奉使 능유 등 일행이 돌아오던 길에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삼국사기』 권11, 경문왕 2년(862), “8월에 당나라에 가던 사신 아찬 富良 등의 일행이 익사하였다”.

71) 『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咸亨2年(671), “夏四月戊子, 大風折木”; 『新唐書』 卷3, 高宗本紀, 咸亨2年(671), “四月戊子, 大風, 雨雹”.

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람이 강할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⁷²⁾ 수목이 뽑힐 정도의 바람크기는 보퍼트 풍력계급(1-12단계)에 의하면, 10단계로서 노대바람(storm)이라 한다. 풍속은 48~55노트이고 파고는 9m이며,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강풍으로 수목은 뿌리 채 뽑히고 가옥에 큰 피해가 있다고 한다.⁷³⁾ 당 수군이 활동 및 정박하던 지역은 풍랑에 극히 취약한 곳이었고, 특히 670년과 671년은 바람이 상당한 강한 시기였음을 감안해 보면, 이들이 풍랑 내지는 폭풍에 의해 좌초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하겠다.

IV. 신라의 정보수집과 문두루 비법의 시행

신라는 667년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공격시, 당군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세작을 3회나 보냈고, 그 정보에 바탕하여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는 신중함을 보였다(I).

1. 건봉 2년(667) … 신라의 병마만이 홀로 (고구려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먼저 細作을세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워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세작이 돌아와 모두 말하기를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고구려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⁷⁴⁾

국가의 존망을 걸고 전쟁이 지속되던 삼국시대부터 첩보활동이 성행해 왔음⁷⁵⁾을 감안할 때, 나당전쟁기 신라의 첩보활동이나 정보수집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⁷⁶⁾ 또한 신라는 장기간 나당연합의 경험을 통해 당 수군의

72) 『舊唐書』 卷8, 玄宗本紀, 開元 9年(721), “秋七月 … 丙辰, 揚、潤等州暴風, 發屋拔樹, 漂損公私船舫一千餘隻”.

73) 설동일, 앞의 책, pp. 76~77 참조.

74)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671), 「답설인귀서」.

75) 石井正敏, 『東アジア世界と古代の日本』, 山川出版社, 2003, pp. 71~75.

76) 신라는 669년 5월 급찬 기진산 등을 보내 당에 자석 두 상자를 바쳤고, 그 해 겨울에는 대내마 복한을 당으로 보내 목재를 바쳤는데(『삼국사기』 권6, 문무왕 9년), 이러한 공식적인 루트와 더불어 비공식적으로 첩자를 파견하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을 것이다.

장·단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라의 국경일대를 맴돌고 있던 당 수군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이때(670년)에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아직 교전을 하지 않았는데, 풍량이 크게 일어나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라고 되어 있다(A-③). 아직 교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신라가 최소한 당 수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넓게는 신라 수군의 교전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 신라는 671년 1월 당군이 와서 백제를 구하러 한다는 말을 듣고, 대야찬 진공 등을 보내 옹포로 나아가 수비케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당의 조운선 70여척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⁷⁷⁾ 그리고 673년 9월에는 당군이 북쪽 변경을 침입하기 전에, 이미 대야찬 철천 등을 보내 병선 100척을 이끌고 서해를 지키게 하였다.⁷⁸⁾ 아울러 675년 2월 이후에는 당군이 거란·말갈군과 함께 쳐들어 온다는 말을 듣고, 9군단을 출동시켜 이에 대비케 하였다.⁷⁹⁾ 이렇게 볼 때 신라는 670년의 경우도 당 수군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당 수군은 樓船(대형전투선), 艫衝(중형전투선), 走舸(구급선), 遊艇(정찰선), 海鷗(특수선)⁸⁰⁾ 등 6종류의 병선을 보유하고 있었다.⁸¹⁾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671년 당시 신라에 투입된 당의 주력전선은 누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²⁾ 이러한 누선은 선체가 높고 크며, 무기와 방호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누선은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활과 창을 사용할 수 있는窓이 있었고, 외부에는 가죽을 씌워 화공에 대비하였으며, 또 발석차를 설치하여 城壘와 같았다.⁸³⁾ 따라서 당 수군에 있어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주력 함선이었다.⁸⁴⁾ 그러나 선체가 높고 무거웠기 때문에 안정성과 기동성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만약 큰 풍량을 만나면 조종이 어려웠고, 전복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⁸⁵⁾ 이렇듯 당의 누선은 적과의 접전

77)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671).

78)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3년(673).

79)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5년(675).

80) 병선의 전면이 넓고 낮으며 후면이 좁고 높은 형태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張鐵牛·高曉星, 『中國古代海軍史』, 解放軍出版社, 2006, p. 87).

81) 王冠倬 編, 『中國古船圖譜』, 三聯書店, 2000, p. 95 참조.

82) II 장의 주28 참조.

83) 張鐵牛·高曉星, 앞의 책, p. 28.

84) 王冠倬 編, 『中國古船圖譜』, 三聯書店, 2000, p. 113.

85) 張鐵牛·高曉星, 앞의 책, p. 28.

에서는 상당히 강하였지만, 풍랑이나 정박에는 취약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宋 이전의 닻은 원주모양이 아니라서, 물속에서 일정하게 지면을 붙잡아 주지 못했고, 종종 정박에 실패하기도 하였다.⁸⁶⁾ 이러한 점들을 정보수집에 철저했던 신라가 모르고 있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세기 전반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자.

J. 田豫는 적선이 歸航할 것을 헤아렸는데, “시기가 늦어 바람이 거세어 반드시 표류할 것을 두려워 할 것이며, 동쪽으로는 해안이 없으므로 마땅히 成山으로 나아갈 것이다. 성산에는 배를 정박할 장소가 없으니, 곧 다시 바다를 돌아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세와 여러 산과 섬을 살피어, 험한 요지를 찾아 길을 막고 병을 두어 주둔해 지키게 하였다. … 적이 귀항할 때 과연 惡風을 만나 배는 모두 산에 부딪혀 침몰하였고, 파도가 거세게 해안으로 밀려왔다. 달아난 자는 없었고 그 무리를 모두 포로로 삼았다.⁸⁷⁾

전예는 중국 삼국시기 위나라의 장수로서, 232년 오나라의 선단이 요동반도로 상륙해 공손연과 우호관계를 맺자 이를 격퇴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위나라의 조비는 오나라의 수군이 강함을 알고, 전예에게 직접 부딪혀 싸우지 말고 물러나 있으라고 하였다.⁸⁸⁾ 전예는 오나라의 선단이 귀항할 때에는 크게 우회하는 원양항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산동반도를 따라 항해하다가 동쪽 끝인 성산으로 돌아 남하할 것을 미리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길목에 병력을 배치하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여, 이들이 성산에서 풍랑에 좌초되자 모두 포로로 삼는 전과를 거두었다. 즉 위나라는 오나라의 수군이 강함을 알고 직접 전투를 회피하였고, 적의 이동경로를 예상하여 매복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예가 3세기 전반에 이미 산동성 일대에 폭풍이 불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다.

K. 고려인은 바다 밖에서 나고 자라 활동하는 것이 큰 파도와 더불어 있게 되니, 진실로 舟楫을 앞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 제도를 살펴보니 간략하여 아주 정교하지 않는데, 그 간소함은 물을 편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서이

86) 張鐵牛·高曉星, 같은 책, pp. 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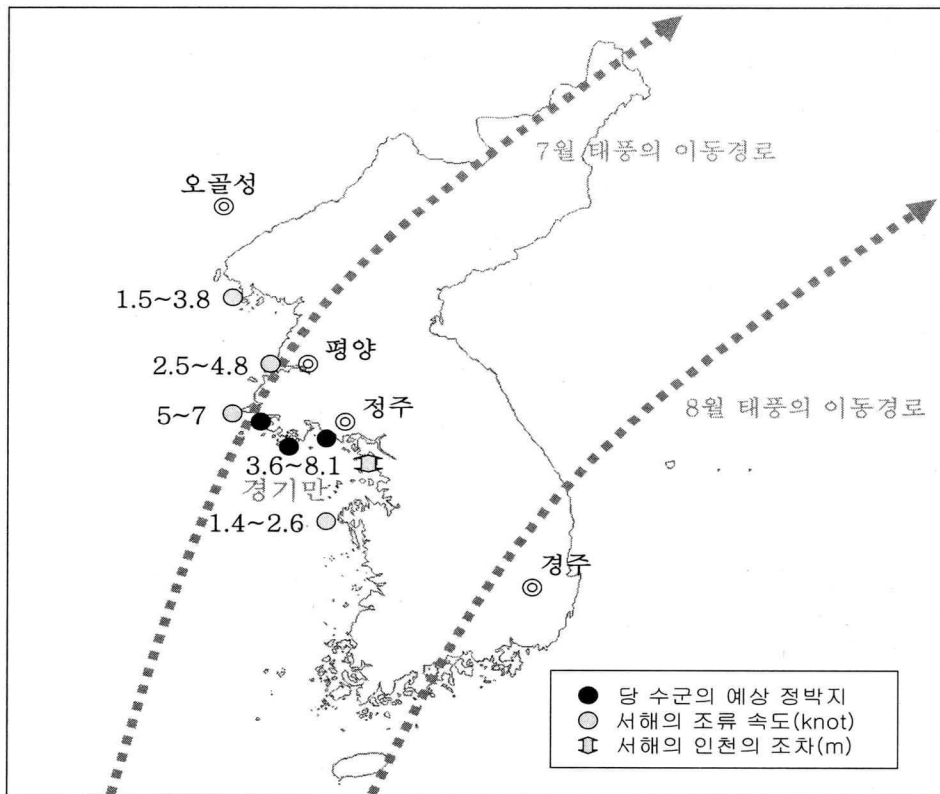
87) 『三國志』 「魏書」 卷26, 田豫傳, “豫度賊船垂還, 歲晚風急, 必畏漂浪, 東隨無岸, 當赴成山. 成山無藏船之處, 輒便循海, 案行地勢, 及諸山島, 徼截險要, 列兵屯守 … 賊還, 果遇惡風, 船皆觸山沈沒, 波蕩著岸, 無所蒙竄, 盡虜其衆”.

88) 『三國志』 「魏書」 卷26, 田豫傳.

다.⁸⁹⁾

『高麗圖經』은 송나라의 사신 서공이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高麗圖經』의 K를 통해 고려인들이 선박에 아주 능했던 일면을 알 수 있다. 물론 나당전쟁기에 비해 한참 후대의 일이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신라인들도 선박에 관한 사항이나 항해 그리고 바다환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음을 짐작케 한다. 만약 신라가 전예처럼 서해의 독특한 항해환경을 이해하고 당 수군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당 수군의 배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당 수군에 대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당 수군의 정박 상황도



89) 『高麗圖經』 卷33, 舟楫.

현대전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사회의 전체역량을 흡수 또는 동원해야 하는 국가총력전이다. 전투력=군사력×비군사력×정신력이라는 방정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⁹⁰⁾ 당시 신라도 최강대국 당에 맞서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활발한 정보수집과 군사적인 전투준비와 더불어, 정신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전도 구사하였을 것이다. 특히 김유신은 첩자활용 뿐만 아니라 심리전에도 대단히 능숙하였는데,⁹¹⁾ 이를 통해 당시 신라 수뇌부가 심리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였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수뇌부는 충분한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당 수군이 풍랑에 좌초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민과 신라군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문두루 비법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문두루 비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당 수군이 실제로 풍랑에 의해 좌초되었던 것 같다. 즉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671년 괘지해의 경우 ‘風起濤驚, 船壞而溺’되었던 것이다.⁹²⁾ 이에 따라 문두루 비법을 통해 외침을 막아내었다는 신념을 신라민과 신라군에게 심어줄 수 있었으며, 나아가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670년과 671년의 당 수군의 침몰은 이후 나당전쟁의 전개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670~671년 사이 당의 고간·이근행의 행군은 한반도에서 별다른 군사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671년 10월에는 신라가 당의 운송선을 공격하기도 하는 등⁹³⁾ 서해의 해상권을 신라가 확보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⁴⁾ 그리고 당 육군은 672년 8월 이후에야 황해도 일대에서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며, 673년 9월 이전까지는 당 수군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670년과 671년 당 수군의 침몰은 나당전쟁 초기 신라의 제해권 장악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90) 金種淑, 『戰史를 통해 본 心理戰의 特徵과 敎訓』, 『軍史』 43, 2001, p. 148 참조.
 91) 김영수, 『고대 첩자고』, 『軍史』 27, 1993;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軍史』 62, 2007 참조.
 92) II장의 주39 참조.
 93) 『삼국사기』권7, 문무왕 11년(671) 참조.
 94) 서영교는 671년 9월에 평양에 도착한 당군이 10월에 운량선의 격침으로 인해 평양에서 일단 철수하였다가 672년에 다시 진군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p. 186). 한편 이상훈은 671년에 평양에 도착한 당군은 선발대로, 672년에 도착한 부대는 본대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다(이상훈, 『羅唐戰爭의 開戰과 薛烏儒 部隊』, p. 273).

V. 맺음 말

나당전쟁은 신라에 있어 對백제·고구려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전쟁이었다. 국가의 존망을 다투는 그것도 외부의 지원없이 최강대국과의 전면전이었다. 그러나 신라는 8년에 걸친 장기전을 치루면서 한반도를 굳건히 지켜내었다. 그 이면에는 신라 수뇌부의 전략전술이 주효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신라의 일반민을 비롯한 백제·고구려의 유민의 참여로 당을 물리칠 수 있었다.

국가 총력전에 있어서는 국민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 즉 민심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라가 요동 선제공격으로 나당전쟁을 시작하였지만, 당이라는 거대세력에 맞선 신라군과 신라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본토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앞서 당의 수군이 국경을 배회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그 공포는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이다. 당 수군의 등장에 신라왕실에서 명랑법사를 불러 자문을 구했던 만큼 명랑법사는 불법이외도 천문·지리 및 항해술에도 능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두루 비법의 시행과 당 수군의 침몰은 『삼국유사』에만 기록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어 왔다. 그렇지만 당시 서해의 해양환경과 폭풍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통해 볼 때 실제 발생했던 일을 확대·과장하여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당문보유』에 수록된 곽지해라는 인물이 671년에 계림도판관으로 임명되어, 압운사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풍랑에 의해 침몰된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본고를 통해 당이 670년과 671년 모두 수군을 파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당 수군이 주로 활동 혹은 정박하고 있던 곳은 경기만 북부일대였다. 경기만은 황해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이고 조수간만의 차도 세계적으로 큰 곳이었으며, 중국에 비해 섬이 많고 예성강, 임진강, 한강 등의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여 물길이 아주 복잡한 곳이었다. 그리고 670년과 671년은 바람이 강하게 불던 시기였는데, 신라는 지속적으로 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당의 주력선인 누선의 취약점과 정박의 불안정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문두루 비법의 시행은 신라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라 수뇌부는 당 수군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를 하면서도 신라군과 신라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명랑을 불러들였던 것이다. 만약 풍랑이나 폭풍이 발생하지 않아 당 수군이 침

몰하지 않았더라도, 신라는 수군을 동원해 지형과 해·조류를 이용해 기습작전을 펴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정박해있던 당 수군이 실제로 침몰해버렸고, 신라군과 신라민은 명랑법사의 문두루 비법에 의해 외침을 막아내었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는 나당전쟁 초기 신라의 제해권 장악에 큰 역할을 하여, 당군은 673년 이전까지 별다른 수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문두루 비법의 시행과 당 수군의 침몰은 신라 수뇌부에 있어서는 싸우지 않고 적을 물리치고,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명랑법사에 있어서는 신인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천왕사의 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문두루 비법의 성공은 신라 수뇌부와 명랑법사의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논문투고일 : 1월 20일, 논문심사완료일 : 2월 23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25일]

[참고문헌]

1. 기본사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新唐書』· 『三國志』· 『宋史』· 『資治通鑑』· 『全唐文補遺』· 『高麗圖經』· 『入唐求法巡禮行記』

2. 단행본

- 金文經, 『保阜研究』, 연경문화사, 1997.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 설동일, 『해양기상학』, 다솜출판사, 2006.
-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 중앙기상대, 『한국태풍80년보(1904~1983)』, 중앙기상대, 1984.
- 최광식 외, 『한국해양사자료집(고대·고려편)』,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 劉旭 編, 『中國古代兵器圖冊』, 北京圖書館出版社, 1986.
- 劉秋霖 외 3인, 『中國古代兵器圖說』, 天津古籍出版社, 2003.
- 劉希爲, 『隋唐交通』, 新文豐出版公司, 1992.
- 石井正敏, 『東アジア世界と古代の日本』, 山川出版社, 2003.
- 王冠倬 編, 『中國古船圖譜』, 三聯書店, 2000.
- 張沛 編, 『唐折衝府匯考』, 三秦出版社, 2003.
- 張鐵牛·高曉星, 『中國古代海軍史』, 解放軍出版社, 2006.

3. 논문류

- 강경구, 「羅唐 戰爭의 序幕 -671년 海戰을 중심으로-」 『신라의 북방 영토와 김유신』, 학연문화사, 2007.
- 高翊晉, 「初期密敎의 發展과 純密의 受容」 『韓國古代佛敎思想史』,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9.

- 金福順, 「신라 불교의 연구현황과 과제」 『新羅文化』 26, 2005.
- 김상태·박언곤, 「四天王寺의 密敎의 特性에 關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0-4(186), 2004.
- 金相鉉,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新羅와 狼山』(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 金淵敏, 「新羅 文武王代 明朗의 密敎思想과 의미」 『韓國學論叢』 30, 2008.
- 김영수, 「고대 첩자고」 『軍史』 27, 1993.
- 김영수,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軍史』 62, 2007.
- 金煥泰, 「三國時代의 神呪信仰」 『韓國密敎思想研究』,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1986.
- 金在庚, 「新羅의 密敎受容과 그 性格」 『大丘史學』 14, 1978.
- 金種淑, 「戰史를 통해 본 心理戰의 特徵과 敎訓」 『軍史』 43, 2001.
- 金昌鎬, 「新羅 密敎사원 四天王寺의 역사적 위치」 『密敎學報』 3, 2001.
- 김태식, 「경주 사천왕사와 명랑법사의 문두루법」 『연합뉴스』(2006년 11월 2일자 생활/문화).
- 文明大, 「新羅 神印宗의 研究 -新羅密敎와 統一新羅社會-」 『震檀學報』 41, 1976.
-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敎 傳來考」 『曉城趙明基博士 華甲紀念 佛敎史學論叢』, 1965.
-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2002.
- 拜根興, 「濟와 唐 關係에 關한 兩 문제 -웅진 도독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묘지명에 관하여-」 『百濟研究』 47, 2008.
- 徐閏吉, 「新羅의 密敎思想」 『韓國哲學研究』 9, 1977.
- 윤명철,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동아시아중해의 역학관계」 『고구려 남진 경영사의 연구』, 백산자료원, 1995.
- 윤명철, 「경기만지역의 해양방어체제」 『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제 연구』, 백산자료원, 2000.
-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의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2007.
- 李相勳, 「羅唐戰爭期 伎伐浦 戰鬪와 薛仁貴」 『大丘史學』 90, 2008.
- 李相勳, 「羅唐戰爭의 開戰과 薛烏儒 部隊」 『歷史敎育論集』 45, 2010.
-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鄭泰嫻, 「韓國佛教의 密敎的 性格에 대한 考察」 『佛敎學報』 188, 1981.
- 조원영, 「新羅 中代 神印宗의 成立과 그 美術」 『釜山史學』 40·41, 2001.
- 존 C. 재미슨, 「羅唐 同盟의 瓦解 : 韓中 記事 聚合의 比較」 『歷史學報』 44, 1969.
- 宗釋(全東赫), 「密敎經典의 新羅 傳來考」 『중앙승가대학교 敎수논문집』 8, 1999.
- 키무라 부오, 「한반도<한국>의 밀교」 『밀敎의 역사와 문화』, 民族社, 1989.
- 洪潤植, 「三國遺事와 密敎」 『東國史學』 14, 1980.
- 菊池英夫, 「日唐軍制比較研究上の若干の問題 -特に「行軍」制を中心に-」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979.